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농어촌공 정읍지사, 복지시설 기부금 전달

추석을 앞두고 정읍 지역 사회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이건국)도 예외가 아니다. 정읍지사는 1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이웃사랑을 담은 기부금을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이날 정읍지사가 방문한 곳은 장애인복지시설인 '자애원'과 '나눔빌'. 두 시설은 장애인의 기본 생활 능력 배양과 자립을 돕고 나아가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다. 정읍지사는 이들 시설과 인연을 이어오며 꾸준한 기부와 지원 활

동을 펼쳐 지역 사회 취약계층의 재화를 뒷받침해 왔다.

이건국 지사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추석을 맞아 우리 지사가 전하는 작은 정성이 시설 이용자들에게 행복과 희망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상생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읍지사는 올 5월에도 직원들의 뜻을 모아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정읍=정성우기자